

**The Gospel of Mark**

Sermon 16 – Sermon Notes

Title: “Light and seed”

Scripture: Mark 4:21-34

Date preached: December 11th 2022

**Scripture: Mark 4:21-34**

**21 Also He said to them, “Is a lamp brought to be put under a basket or under a bed? Is it not to be set on a lampstand? 22 For there is nothing hidden which will not be revealed, nor has anything been kept secret but that it should come to light. 23 If anyone has ears to hear, let him hear.” 24 Then He said to them, “Take heed what you hear. With the same measure you use, it will be measured to you; and to you who hear, more will be given. 25 For whoever has, to him more will be given; but whoever does not have, even what he has will be taken away from him.” 26 And He said, “The kingdom of God is as if a man should scatter seed on the ground, 27 and should sleep by night and rise by day, and the seed should sprout and grow, he himself does not know how. 28 For the earth yields crops by itself: first the blade, then the head, after that the full grain in the head. 29 But when the grain ripens, immediately he puts in the sickle, because the harvest has come.”**

**30 Then He said, “To what shall we liken the kingdom of God? Or with what parable shall we picture it? 31 *It is* like a mustard seed which, when it is sown on the ground, is smaller than all the seeds on earth; 32 but when it is sown, it grows up and becomes greater than all herbs, and shoots out large branches, so that the birds of the air may nest under its shade.” 33 And with many such parables He spoke the word to them as they were able to hear *it*. 34 But without a parable He did not speak to them. And when they were alone, He explained all things to His disciples.**

21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등불을 켜서 그릇이나 침대 아래 둘 사람이 있겠느냐?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지 않겠느냐? 22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23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어라.” 24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여라. 그렇게 하면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25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며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26 예수님은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 27 하루하루 지나가는 동안 농부도 모르는 사이에, 뿌려진 씨는 움이 돋고 자라서. 28 열매를 맺게 되는데 처음에는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와 마침내 여문 알곡이 달린다. 29 곡식이 다 익어 추수 때가 되면 농부는 낮으로 그것을 거둬들인다.” 30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하며 어떻게 설명할까? 31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것이 땅에 심길 때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32 심긴 후에는 모든 채소보다 더 크게 자라서 큰 가지를 늘어뜨린다. 그래서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리게 된다.” 33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많은 비유를 들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데까지 가르치셨다. 34 그러나 비유가 아니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며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따로 설명해 주셨다.

**Review**

Before we look at today's passage of scripture let's review what we studied last week.

The Lord Jesus was again somewhere along the shore of the Sea of Galilee. As was typically the case He was surrounded by a large and enthusiastic crowd. In order to avoid being jostled or

crushed Jesus got into a boat and preached from there.

As I said last time we see here a shift in the teaching style of the Lord Jesus. Prior to this time His ministry had been characterised by a plain and straightforward teaching style. However from this point on He begins to teach using parables. This was because He wanted to temporarily keep the mysteries of the Kingdom from those who had hard hearts. However those that had a desire to know the truth and were receptive would be able to understand the hidden message underlying the parables.

The first parable Mark records Jesus giving is the parable of the sower. It is a very important parable because it is the key to understanding the message behind all the parables. This is why Jesus takes the time to explain it to His followers.

The key to understanding the parable lies in recognising what the various elements of the story represent. There are three key elements and they all begin with the letter "S." These are the **sower**, the **seeds** and the **soil**. The sower represents the one sharing the gospel message. In the original parable it was Jesus who was sharing God's truth with the people. Today we would say it is any person trying to accurately tell people about God's revelation. The seeds represent God's truth. Finally, we have the soil. The soil represents the hearts of those who hear God's words of truth. It is the heart's response to the gospel that is the real take away from this parable.

Some people possess a hard heart. When they hear God's truth they are simply not interested. They will not allow it to penetrate or take root. These people are like the soil on the wayside or path. It has been trampled down and compacted. For this reason the word lies there until it is snatched away by Satan.

Other people are initially receptive to God's Word. These people have hearts like stony or rocky ground. They take God's word in with gladness and it initially takes root and flourishes. However the soil of these people's hearts is shallow. Such people never develop a strong and robust faith. Therefore when times become difficult, or their faith is challenged it easily withers and dies.

Some people have very fertile hearts. When they hear the Word of God they take it in and it begins to grow and flourish. However these people have thorny or weed choked hearts. This means that there is a great deal of competition in their lives. God's truth may have to compete with the fleshly desires for riches or wealth. It may also have to compete with the cares, concerns and worries of life. As a result these kinds of people never fully give themselves over to God and do not end up producing fruit.

Please note that each of the three fruitless hearts is influenced by a different external enemy. With the hard hearted person it is the devil who snatches away God's truth. With the stony ground heart the human flesh counterfeits religious feelings or affections. With the thorny ground heart the things of the world smother the growth and prevent a harvest. We see in these examples the Lord Jesus cleverly revealing to us the three great enemies of every Christian; the world, the flesh and the devil.

The final set of people are the ideal group. They possess hearts that are open and eager to hear God's words of life. When such people hear the truth it takes root, grows and always produces fruit. This fruit differs from believer to believer but there is always evidence of good fruit in a true believer's life.

So in conclusion let us summarise what makes a good hearer of God's Word. The good hearer

welcomes the word immediately, so that Satan cannot snatch it away. The good hearer welcomes it deeply, so that persecution cannot cause them to stumble or fall. Finally the good hearer welcomes it exclusively so that it does not have to compete with other concerns or issues. I hope and pray that this description describes the way you hear and receive God's revelation.

Today the Lord Jesus will give us three more parables.

오늘의 성경구절을 보기 전에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을 복습합니다. 주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호숫가 어딘가에 계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그분은 크고 열광적인 군중에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요동을 당하거나 놀림을 피하기 위하여 배에 오르사 거기에서 전파하시니라. 내가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우리는 여기에서 주 예수님의 가르침 스타일의 변화를 봅니다. 이 시대 이전에 그분의 사역은 단순하고 직선적인 교수법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그분은 비유를 사용하여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는 왕국의 비밀을 일시적으로 감추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수용적인 사람들은 비유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비유는 예수님이 주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모든 비유 뒤에 숨은 메시지를 이해하는 열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비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시간을 내어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이유입니다. 비유를 이해하는 열쇠는 이야기의 다양한 요소가 나타내는 것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으며 모두 "S"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씨 뿌리는 사람과 씨앗과 흙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복음 메시지를 나누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원래의 비유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계시를 정확하게 말하려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흙이 있습니다. 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 비유의 진정한 의미는 복음에 대한 마음의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때 그들은 단순히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침투하거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길가나 길가에 있는 흙과 같습니다. 짓밟히고 압축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말씀은 사탄에게 빼앗길 때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돌이나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처음에는 뿌리를 내리고 번성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마음의 토양은 얕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강하고 견고한 믿음을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어려워지거나 그들의 믿음이 도전을 받으면 쉽게 시들어 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비옥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성장하고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가시가 있거나 잡초가 마음을 숨 막히게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에 엄청난 경쟁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재물이나 재물에 대한 욕심의 욕망과 경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삶의 근심, 걱정, 근심과 경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세 개의 열매 없는 마음은 각각 다른 외부적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마음이 완악한 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빼앗는 것이 마귀입니다. 돌로 된 땅의 마음으로 인간의 육체는 종교적 감정이나 애정을 위조합니다. 가시밭의 마음으로 세상의 것들은 성장을 막고 추수를 막습니다. 우리는 이 예에서 주 예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큰 원수를 교묘하게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을 봅니다. 세상과 욕심과 마귀. 사람들의 마지막 집합은 이상적인 그룹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리를 들을 때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항상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는 신자마다 다르지만 참된 신자의 삶에는 항상 좋은 열매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는지 요약해 보겠습니다. 잘 듣는 사람은 사단이 빼앗지 못하도록 말씀을 즉시 받아들입니다. 잘 듣는 사람은 박해로 걸려 넘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깊이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경청자는 다른 문제나 문제와 경쟁할 필요가 없도록 독점적으로 환영합니다. 나는 이 설명이 당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받는 방식을 설명하기를 희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비유를 더 주실 것입니다.

**21 Also He said to them, “Is a lamp brought to be put under a basket or under a bed? Is it not to be set on a lampstand? 22 For there is nothing hidden which will not be revealed, nor has anything been kept secret but that it should come to light. 23 If anyone has ears to hear, let him hear.” 24 Then He said to them, “Take heed what you hear. With the same measure you use, it will be measured to you; and to you who hear, more will be given. 25 For whoever has, to him more will be given; but whoever does not have, even what he has will be taken away from him.”**

Have you ever been shopping for a new lamp? Perhaps you wanted a bedside lamp so that you could read comfortably at night before going to bed. Maybe you wanted an angled lamp so that your child could study without damaging their eyes. Perhaps you just wanted a nice lamp to make your living room cosy. When you selected the lamp you liked and took it home what did you do? Let me guess, did you plug it in and then cover it with a blanket? Did you plug it in and then hide it behind the sofa under a box? No of course not. What use would that have been. You bought a lamp to illuminate the darkness.

The lamp of Jesus day would have been a small clay dish with the edges pinched up to form a spout. The dish would have been filled with a few teaspoons of oil. Running from the spout to the dish would have been a wick commonly made from fabric. These lamps usually rested on small wooden or brick shelves protruding from the wall. By modern standards they would not have thrown out much light but they would have allowed the family to move safely around inside the dark interior of the house.

The basket referred to here was a common household receptacle designed to hold a designated measure of grain. As with all parables we have these familiar items cast alongside something less familiar in order to teach us something about the unfamiliar. So what does the parable teach us. Let us consider it now.

It's placement in Mark's gospel is deliberate and significant. This is why bible teachers often say that context is critical in properly understanding the scriptures. Often it is difficult to correctly interpret the meaning of a passage or verse without carefully studying the surrounding verses or passages.

The parable of the lamp follows on from the parable of the sower. But of even more significance is Jesus announcement that the mysteries of the Kingdom will be known only by those on the inside. Those on the outside will receive the truth through the vehicle of the parables which are often difficult to understand. So the disciples are understandably somewhat puzzled.

They, remember are anticipating that Jesus will lead a national movement to overthrow the Romans. So why, they wonder is Jesus keeping things back from some people. They wonder therefore whether Jesus is deliberately hiding the truth from those on the outside. The answer of course is no. No one lights a lamp and then covers it. A covered lamp is useless. Equally, the truth as delivered through a parable if not explained or understood is equally useless. A parable may be interpreted in a variety of different ways some of which may be way off the mark. So what Jesus is really saying

here is it whilst it may be true that the parables keep the truth away from some for a time in the end all will be revealed. The Lord Jesus remember came into the world to throw light onto the truth not to obscure it.

Jesus is preparing His followers for their future important mission. Soon He would depart from the world. It would then be the duty of His followers to serve as God's lamps. It would be up to these people to be God's light and illuminate His truth. However before we are able to instruct others we first need instruction. We need to take in before we can give out. We see this idea played out every day in our public schools. A school teacher has to know their subject well in order to be able to teach their students. To do this they have to study and accumulate knowledge before they can dispense it to their students.

This is why Jesus calls upon His followers to listen carefully. What He is giving them is a world changing revelation. It therefore requires them to listen carefully and pay attention. There are of course degrees in listening. Sometimes we are able to focus our listening and block out distractions. At other times we allow things to distract us, and we do not listen carefully. I know this very well from my many years of teaching. I can instantly tell who is really paying attention to my instruction, and who is day dreaming and only partially listening. I know this because when I tell my students to begin a task I have just explained those who were not paying attention are clueless.

Equally as a pastor I can sometimes see as I look out at my congregation those who have gone glassy eyed and are no longer paying attention. On a personal level this is disappointing, but not to be listening and learning from God's revelation is tragic. It's an understatement to say we need to listen carefully to the Words of our Lord and saviour. He alone gives us the words of life. Ignore His words or fail to listen attentively at your peril.

Today we also need to be careful of who we listen to. The world is full of bad, faulty and dangerous teaching. There are many very bad books available even in "Christian book-stores." Take for example the book "Jesus calling" by Sarah Young. It's a really problematic book because Young claims that Jesus spoke to her directly and that this should be the normal experience for every believer. Christians of course are very discerning and would know to steer clear of books like this. Wrong! The publisher claims that the book has now sold more than 10 million copies in 26 languages. And don't even get me started on some of the videos you can see on YouTube. You would be amazed at what some very mature believers, who ought to know better hold to be true. So I encourage you to be sure that you are sitting under and learning from leaders who can be trusted and who stand firm upon the truth of God's Word.

Once we have listened well and taken in God's truth we are not simply to keep it to ourselves. We are to take what we have learned and share it with others. Jesus tells us that this is pleasing to God, and He will respond by further blessing those who share the good news. Such a person will be given more from God. By contrast those who refuse to listen and hear, and who remain hard hearted will have even that little taken from them.

Let us turn to our next parable.

새 램프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당신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밤에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침대 옆 램프를 원했을 것입니다. 자녀가 눈을 손상시키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각진 램프를 원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거실을 아늑하게 만들기 위해 멋진 램프를 원했을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램프를 골라 집에 가져갔을 때 무엇을 했는가? 짐작컨데, 플러그를 꽂고 담요로 덮으셨습니까? 플러그를 꽂은 다음 상자 아래 소파 뒤에 숨겼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당신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 램프를 샀습니다. 예수 시대의 등잔은 가장자리가 오프려 주둥이를 만든 작은 진흙 접시였을 것입니다. 접시는 몇 티스푼의 기름으로 채워졌을 것입니다. 주둥이에서 접시까지 이어지는 것은 일

반적으로 천으로 만든 십자였을 것입니다. 이 양들은 일반적으로 벽에서 튀어나온 작은 나무 선반이나 벽돌 선반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현대 표준에 따르면 그들은 많은 빛을 끄지 않았을 것이지만 가족이 집의 어두운 내부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바구니는 지정된 양의 곡식을 담도록 설계된 일반적인 가정용 저장소였습니다. 모든 비유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 이 친숙한 항목을 덜 친숙한 항목과 함께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생각해 봅시다. 마가복음에서 그것을 배치하는 것은 고의적이고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교사들이 경전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문맥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종종 주변 구절이나 구절을 주의 깊게 연구하지 않고 구절이나 구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등불의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왕국의 비밀이 속사람에게만 알려질 것이라고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의 매개체를 통해 진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해할 만하게도 다소 어리둥절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로마를 전복시키기 위한 민족적 운동을 이끌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왜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물건을 숨기고 계시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외부 사람들에게 진리를 숨기고 계시는지 궁금해합니다. 물론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등불을 켜고 덮는 사람은 없습니다. 덮힌 램프는 쓸모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유를 통해 전달된 진리도 설명되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비유는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는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하신 것은 비유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멀리하게 하는 것이 사실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진리를 가리지 않기 위해 빛을 비추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께서는 미래의 중요한 사명을 위해 추종자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곧 그분은 세상을 떠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등불이 되는 것이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의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밝히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려면 먼저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포기하기 전에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아이디어가 공립학교에서 매일 실행되는 것을 봅니다. 학교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으려면 과목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분배하기 전에 지식을 연구하고 축적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라고 요구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계시입니다. 따라서 주의 깊게 듣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듣기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듣는 데 집중하고 방해 요소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일을 허용하고 주의 깊게 듣지 않습니다. 나는 다년간의 강의를 통해 이것을 아주 잘 압니다. 누가 내 지시에 정말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누가 낮잠을 자고 부분적으로만 듣고 있는지 즉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학생들에게 작업을 시작하라고 말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우둔하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로서 나는 때때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눈이 멀고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실망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듣지 않고 배우지 않는 것은 비극적입니다. 우리 주님과 구세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과소평가된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당신의 위협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또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지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은 나쁘고 잘못되고 위험한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에도 아주 나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Sarah Young의 책 "Jesus calling"을 생

각해 보십시오. 영이 예수님이 그녀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책은 정말 문제가 많은 책입니다.

**26 And He said, “The kingdom of God is as if a man should scatter seed on the ground, 27 and should sleep by night and rise by day, and the seed should sprout and grow, he himself does not know how. 28 For the earth yields crops by itself: first the blade, then the head, after that the full grain in the head. 29 But when the grain ripens, immediately he puts in the sickle, because the harvest has come.”**

When my sister and I were young we were each given our own small section of the garden. It was perhaps a square metre. We could plant whatever we wanted in our mini gardens. Flowers, plants or vegetables. I thought it would be fun to grow some radishes. My mother brought me the seeds and I planted and watered them. Every morning before school I would go down to see how they were doing. For a very long time it seemed to me that nothing was happening. There was no visible sign that anything was occurring beneath the soil. But then one morning to my great joy I spied a tiny part of one green stem poking through the soil. My radishes were growing. I had brought life into the world. Or had I? Really in truth what had I done. Aside from planting the seeds and occasionally watering the soil I had contributed nothing. The seed took root and grew in a mysterious way that was wholly independent of my involvement.

Of course Jesus isn't telling us about the life of farmers and their crops. This is a parable about how God's Kingdom works. As with the parable of the sower the seed represents God's Word or God's truth. The sower or farmer represents the person sharing that truth with others. When we share God's truth with another person we are in effect planting a seed.

Will that seed take root and grow? Will that person put their faith in Christ and bear fruit? That remains a mystery to us because it depends entirely on God. So although it's true to say in some sense that we work in partnership with God He is the one who does all the work. We plant the seed but after that it's down to God. All we can do is hope and pray. It was very much the same for my childhood radishes. I could do nothing to ensure that my radishes flourished, their successful growth rested with God.

So as believers we are just called to be faithful in sharing the gospel message with others. We may not know if that person will go on to bear fruit. It may be many weeks, months or even years before God works in that person's life. We should find this reassuring. I suppose it is human nature for us to want immediate results. We often think that whether a person accepts or rejects the gospel depends upon our presentation of it. If only we were better prepared or more eloquent. Often we may feel discouraged that we were not more persuasive. Typically, our desire, when we share the gospel is that right at that moment they will fall to their knees and repent of their sins. Sometimes this happens, but what is more likely is that they go away and think about what we have said. The Holy Spirit works on their conscience and it is only later, often much, much later that something dramatic happens. So we need not worry so much about what we say or how we say it. We are just called to plant the seed and then leave the rest to God.

Let us turn to the final parable.

언니와 내가 어렸을 때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작은 정원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평방 미터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니 정원에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 심을 수 있습니다. 꽃, 식물 또는 야채. 나는 무를 재배하는 것이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씨앗을 가져다 주셨고 나는 심고 물을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 가기 전에 나는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내려가곤 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토양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눈에 띄는 징후는 없었습니다. 그러

나 어느 날 아침 나는 큰 기쁨으로 흙을 뚫고 나오는 녹색 줄기의 작은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내 무가 자라고 있었다. 나는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아니면 내가 있었나요? 사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씨앗을 심고 가끔 흙에 물을 주는 것 외에는 아무 기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내 개입과 완전히 독립적인 신비한 방식으로 자랐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농부와 농작물의 삶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나 농부는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진리를 나눌 때 우리는 사실상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랄까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여 일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이지만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희망과 기도뿐입니다. 어린 시절의 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내 무가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 아무 것도 할 수 없었고 그들의 성공적인 성장은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충실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역사하시기까지는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가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데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잘 준비했거나 더 유창했다면. 종종 우리는 우리가 더 설득력이 없다는 사실에 낙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이 무릎을 꿇고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만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그들이 떠나서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들의 양심에 역사하시며, 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은 훨씬 더 나중에, 종종 훨씬 더 늦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비유로 돌아가 보자.

**30 Then He said, "To what shall we liken the kingdom of God? Or with what parable shall we picture it? 31 It is like a mustard seed which, when it is sown on the ground, is smaller than all the seeds on earth; 32 but when it is sown, it grows up and becomes greater than all herbs, and shoots out large branches, so that the birds of the air may nest under its shade." 33 And with many such parables He spoke the word to them as they were able to hear it. 34 But without a parable He did not speak to them. And when they were alone, He explained all things to His disciples.**

In 1878 a group of railway workers from the Lancashire and Yorkshire Railway company decided to form a football team. They wanted to brighten up their dour hard-working lives with football. They called their new team Newton Heath LYR Football Club. At first, they only played teams from other railway companies and factories in the north of England. There was no official league so these were just friendly matches. They had no stadium to play in so games took place on muddy playing fields.

In 1880, they played their first recorded match; they lost the match 6-0! It was hardly a glorious beginning. Today Newton Heath LYR football club is known by another name. They are known as Manchester United. A name that is recognised around the world. Today they are the 5<sup>th</sup> richest football club on the planet. That is quite a rise from such modest humble beginnings.

I give this example because this in essence is what Jesus is teaching us in this third and final



parable. He wants us to note the contrast between the Kingdom's insignificant beginnings compared with what it will eventually become. Once again Jesus is focusing on seeds. On this occasion He specifies the seed as being a mustard seed.

1878 년 Lancashire 와 Yorkshire 철도 회사의 철도 노동자 그룹은 축구 팀을 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축구로 열심히 일하는 삶을 밝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팀을 Newton Heath LYR Football Club 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영국 북부에 있는 다른 철도 회사와 공장의 팀만 플레이했습니다. 공식 리그가 없었기 때문에 친선 경기로 치러졌다. 그들은 경기장이 없었기 때문에 진흙 투성이의 경기장에서 게임이 진행되었습니다. 1880 년에 그들은 첫 번째 기록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들은 경기를 6-0 으로 졌습니다! 영광스러운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Newton Heath LYR 축구 클럽은 다른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름. 오늘날 그들은 지구상에서 5 번째로 부유한 축구 클럽입니다. 그것은 겸손하고 겸손한 시작에서 상당히 상승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 번째이자 마지막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예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왕국의 하찮은 시작과 왕국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 사이의 대조를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씨앗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분은 그 씨를 겨자씨로 지정하셨습니다.

A mustard seed is a very small seed. But it's not the smallest seed that exists. We know that poppy and orchid seeds are smaller than a mustard seed. So naturally some people wishing to find any reason to challenge the Lord Jesus say that His error is defining mustard seeds as the smallest means He could not have been divine. God after all would have known which seeds were smaller. Therefore if He was wrong about the mustard seed what else was He wrong about.

Is this a legitimate reason to doubt the words of Jesus? Of course not. Look carefully at what Jesus says, ***It is like a mustard seed which, when it is sown on the ground.*** So Jesus was not comparing a mustard seed to all the other seeds in the world. He was instead comparing it only with the common kinds of seeds that Palestinian farmers sowed. He knew that orchid seeds were smaller, but they were not part of the farmers crop in His day.

What about the size of mustard plants. Surely they do not grow to the size Jesus suggests they do. Wrong again. The black mustard seed plant in Israel will commonly grow to heights of between 3 and 4 meters. This means in theory it could easily house a birds nest.

Also we need to take into account figures of speech. We must be aware that not everything in the bible is intended to be taken literally. For example in Mark chapter 1 verse 5 we read the following;

**Then all the land of Judea, and those from Jerusalem, went out to him and were all baptized by him in the Jordan River, confessing their sins.**

Do we read this and assume that when it says “**all**” it means every single person living in Judea went to see John the baptist. Men, women, children the elderly, the crippled and sick. That the towns and villages were totally deserted because everyone was visiting John. Of course not. It is used in a hyperbolic sense to convey to us that John's message reached and impacted many.

Jesus in this parable is using rhetorical hyperbole. He is making an exaggeration in order to drive home a particular point.

What is the point that Jesus is making here? Very simply he wants to stress the contrast between the kingdom's insignificant beginnings and its final impressively large size. Perhaps the early disciples looked at the movement they were a part of and had doubts. They were just a small number based in a house in Capernaum. They could not have imagined I'm sure that more than 2000 years later the

Kingdom message would have spread around the globe and impacted so many.

Mark concludes this teaching section of Jesus by telling us that Jesus used many parables.

He had given us just three which means many were not recorded. He emphasises this point by telling us they became Jesus' main form of teaching. Later when they were alone Jesus explained the parables more clearly to His disciples. This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 crowds who heard the parables understood nothing. Rather, it means that Jesus gave His close followers a more detailed or thorough explanation.

Let us conclude this section by briefly summarising the four parables. The four parables Mark chose to record reveal some important facts about the kingdom.

► The first parable, the sower and the seeds tells us that there will be a variety of responses to the good news about the kingdom.

► The second parable, the light and the basket tells us that God's truth is intended to shine brightly and illuminate the darkness.

► The parable of the seed growing by itself teaches us that the good news will bring forth fruit by itself. All we need to do is sow the seed and then leave the rest to God.

► Finally the parable of the mustard seed reveals that though the Word is small, it will eventually produce something very large and beneficial.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존재하는 가장 작은 씨앗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귀비와 난초 씨가 겨자 씨보다 작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들은 주 예수님을 도전할 이유를 찾고자 하는 그의 오류가 겨자씨를 그가 신성하지 않은 가장 작은 수단으로 정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은 결국 어떤 씨앗이 더 작은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겨자씨에 대해 잘못하셨다면 그 외에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합당한 이유입니까? 당연히 아니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한 알 같으니라고 하신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은 겨자씨를 세상의 다른 모든 씨와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 대신에 팔레스타인 농부들이 뿌린 일반적인 종류의 씨앗과만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난초 씨가 더 작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것은 그분의 시대에 농부들의 곡식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겨자 식물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확실히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크기만큼 자라지 않습니다. 또 틀렸어. 이스라엘의 검은 겨자씨 식물은 일반적으로 3~4 미터 높이까지 자랍니다. 이것은 이론상 새 둥지를 쉽게 수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는 연설의 수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내용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지도록 의도된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1 장 5 절에서 우리는 다음을 읽습니다.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니 우리는 이것을 읽고 "모두"라고 말하면 유대에 사는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보러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정합니까? 남자, 여자, 어린이 노인, 불구자 및 병자. 모두가 존을 방문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과 마을은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당연히 아니지. 요한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고 영향을 미쳤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 과장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수사학적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정 지점을 집으로 몰고 가기 위해 과장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점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그는 왕국의 하찮은 시작과 마지막으로 인상적으로 큰 규모 사이의 대조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초기 제자들은 그들이 속한 운동을 보고 의심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거주하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2000 년 이상 후에 왕

국 소식이 전 세계에 퍼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사용하셨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 부분을 끝맺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단지 세 개를 주었습니다. 이는 많은 것이 기록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들이 예수님의 주요 가르침 형식이 되었다고 말함으로써 이 점을 강조합니다. 나중에 그들이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를 더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유를 들은 무리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친한 제자들에게 더 자세하고 철저한 설명을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네 가지 비유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이 절을 마치겠습니다. 마가가 기록하기로 선택한 네 가지 비유는 왕국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 ▶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자와 씨는 천국 복음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 ▶ 두 번째 비유인 빛과 광주리는 하나님의 진리는 환하게 비추고 어두움을 밝히는 데 있음을 알려줍니다.
- ▶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는 좋은 소식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씨를 뿌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입니다.
- ▶ 마침내 겨자씨 비유는 말씀이 비록 작을지라도 결국에는 크고 유익한 것을 맺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wo comments to make on today's passage.

#### 1 We have a part to play

The Lord Jesus was very purposeful and deliberate during His time on earth. In three short years He had to prepare His followers to be Kingdom workers. You see God doesn't need us, but He does choose to work through us. Fortunately we are equipped with the Holy Spirit to help us in the task or part we have been given. What is that task, what part are we called to play? That task is to faithfully and accurately share the gospel with the world. Just like the disciples of Christ in today's passage we are people "on the inside." We are privy to God's mysteries. These mysteries are not just for our own edification and benefit. They are to be taken and shared with those on the outside. After all how can those on the outside be given the life transforming news if we on the inside do not share it. So you are called to be a sower of seeds. The seeds are God's truth. The soil is the hearts of those around you. Farmers don't need to walk many miles to find good soil. Equally, you do not need to become a foreign missionary or travel to the far reaches of the country. You can sow wherever you are. Plant the seeds and then leave the rest up to God.

주 예수님은 지상에 계시는 동안 매우 목적이 있고 계획적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그분은 당신의 추종자들이 왕국 일꾼이 되도록 준비시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선택하십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나 부분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 과업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 임무는 세상에 복음을 신실하고 정확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비는 우리 자신의 교화와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가져가서 외부 사람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내부에서 공유하지 않는다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삶을 변화시키는 소식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흙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농부들은 좋은 토양을 찾기 위해 수마일을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 선교사가 되거나 먼 나라를 여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에서나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 **2 We are like the mustard seeds**

The parable of the mustard seeds reminds us that from very small and insignificant beginnings great things can come. We recognise this reality in the world around us. Korea is famous for its "chaebols," the giant companies that dominate the economy. These companies are huge concerns that have interests in many different industries and services. But this was not how they began. Samsung, for example was founded by Lee Byung-Chul in 1938. It started life as a single grocery store. Look at it today.

The same thing applies to followers of Christ. Often we feel ourselves to be small and insignificant. That we are contributing very little to God's Kingdom. But in the same way that it takes a long time for a mustard seed to become a giant plant, so we take time to develop. God is working in us and slowly transforming us. We may not notice the progress but God knows the mighty and useful people we will eventually become. Let us then trust God and willingly submit to His careful and deliberate work in our lives.

겨자씨 비유는 아주 작고 보잘 것 없는 시작에서 위대한 일이 올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 세계에서 이러한 현실을 인식합니다. 한국은 경제를 지배하는 거대 기업인 "재벌"로 유명합니다. 이 회사들은 다양한 산업과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큰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은 1938년 이병철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단일 식료품점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봐. 같은 일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종종 우리는 자신이 작고 보잘 것 없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거의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겨자씨가 거대한 식물이 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듯이 우리도 성장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천천히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진전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결국에는 강하고 유용한 사람이 될 것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삶에서 그분의 신중하고 계획적인 일에 기꺼이 복종합시다.

